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일교차가 심한 요즘같은 날씨에 특히 더 감기/몸살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6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 행사 - 감사합니다 😊

1) **5/28 (토) 성당 청소:** 연휴 주말에도 불구하고 성당 창고 여러곳을 깨끗이 청소/정리해준 하모니, 그리고 뜨락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5/29 (일) 전례봉사:** 미사 전례봉사에 수고해주신 이의천, 차아름, 김정호,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형제/자매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야외미사 - 6/5 (일) 11시

장소: Joaquin Miller Park 3450 Joaquin Miller Rd. Oakland, 94611

- **하모니 봉사:** 오전 9시 성당으로 오셔서 야외미사를 위한 장비를 옮기고 셋팅을 도와주실 분들, **연락 부탁 드립니다.** 또한 야외미사 행사 후 하모니가 뒷정리 봉사를 하니 시간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 **점심 준비를 위해 참석인원 명수파악이 필요합니다.** 차아름 루시아 어머님께서 하모니를 위해 고기와 반찬을 준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고기 및 간식을 하모니에서 단체로 준비할 예정이니 님들의 참석 여부를 알려 주세요.

한동안 뵈지 못했던 분들도 이 기회에 많이 오셔서 야외 미사와 더불어 화창한 날씨속에 좋은 시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사와 점심 식사 후 경품추첨 및 각종 게임등에도 참여해 더더욱 즐거운 시간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모니 후원금

염 파트리샤 자매님께서 후원금 \$200를 하모니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하모니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당 봉사/행사에 기쁘게 참여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청년회로 성장하라는 격려로 새기고 감사히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합시 **감사카드** 잊지 마세요~

부회장 사퇴의사

하모니 부회장 이의천 베드로 형제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퇴를 표했으며 회장단은 이를 존중하고 받아 들이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베드로 형제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부담없이 하모니 활동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회장으로서 하모니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봉사할 의향이 있는** 분은 회장단에게 연락 주세요. 은총 많이 받으실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돌아오는 6/12일 주일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6년 연수 (7월 30-31일) - 산타크루즈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http://www.villamariadelmar.org>)

1박 2일 하모니/뜨락 연수 참가신청 받습니다. 준비를 위해 인원파악이 필요하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신부님 말씀

복음서를 읽고/쓰면서 항상 내 곁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또한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6/5일 복음 말씀>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1-17

그 무렵 11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12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13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14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15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

www.oakcc.org